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한국산업위생협회

발전 기금 모금 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 ▷ 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및 단합
 - ▷ 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 ▷ 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 ▷ 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 ▷ 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
3. 기부혜택
 - ▷ 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 ▷ 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 워크숍, 힐링캠프, 체육활동
 -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 ▷ 운영방법 :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 정기적인 감사 실시
 -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 ▷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 ▷ 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
(010-2345-3035)

작업환경측정 대가 산정 서비스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사)한국산업위생협회 부속기구인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의 작업환경측정 대가 산정 서비스 시행에 대한 안내입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재)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과 공정하고 공식적인 측정수수료 제정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5년 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표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1건 중 작업환경측정 부문이 포함되었고, 새롭게 시행될 대가 산정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가 체계는 측정 항목에 모든 재료비, 인건비가 합쳐져 있고, 우리나라는 기술을 기반한 엔지니어에 대한 수가를 대부분 품으로 대가 산정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가 산정 서비스는 공인된 수가 체계로 실비정액가 산방식입니다. 2025년에 예고되었으며, 2026년부터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가입니다. (기존 공공기관 발주처에서 견적 문의가 오면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서비스 사이트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25일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와 (재)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간 MOU를 체결하여 8월 26일에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서비스(<https://www.engcost.or.kr/>) 사이트에 작업환경측정 부문이 정식 오픈되었습니다.

첨부드린 PDF파일에 이용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새로운 수가 체계 개념에 대한 교육을 줌(ZOOM)으로 실시할 예정이니 각 기관의 측정실 팀장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kohma.kr/new_html/board/detail.php?code=1&rowid=1941&page=1&keyword=&keyfield=

한국산업위생협회

정부·국회

[한국산업보건학회] 2025년 하계학술대회 감사 인사

(참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수 신 한국산업위생협회장

(경유)

계 목 2025년 하계학술대회 감사 인사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 하계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귀 협회의 도움과 협조에 아래와 같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아 래 -

금번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라남도 여수시, 8월 20일~22일)에서 열린 제61회 (사)한국산업보건학회 하계학술대회를 귀 협회의 도움과 협조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61회 학술대회를 기념하여 다채로운 행사와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규모와 내용면에서 매우 성공적인 학술대회였습니다.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더욱더 노력하여 발전하는 학회의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에 후원을 해주신 귀 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우리 학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18 대 (사)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 하권철

수신자 한국산업위생협회장

담당	전은미	총무이사	이원석, 이재환	회장	하 권 철
문서번호	KIHA25-126	(2025.08.27)	접수		
우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66	트윈시티남산 640호	/	www.kiha.kr	
전화 02-906-1991	/팩스 02-6499-0403	/	kiha@kiha.kr	/	

1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 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법'" 이라면서,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 2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19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kohma.kr/new_html/board/detail.php?code=1&rowid=1942

정부·국회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2>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4>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시 교육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 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
(~'27년)로 단축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5일(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24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축적된 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내장인테리어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 근골격계 질병이 다수 발병하여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직종(32개)의 경우, 산재노동자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향후 건설업의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제안된 직종에 대해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50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43

정부·국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50801270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가전략 아젠다 적극 추진

공운위 위원들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현황 및 원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예정인 다양한 정책들을 보고받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①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②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둘째, 공공기관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역량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 관련 경영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①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하고, ②경영관리 부문의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③또한 안전 관련 가점을 신설하여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를 안전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재 예방에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 등을 대폭 확대·조정한다.

①우선 심사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확대하고 (현재 73개 → 104개) ②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③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을 상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분기별로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2인 1조 위험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 그리고 지능형 CCTV, 드론, 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는 한편, 안전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의 안전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운위 위원들은 최근에 발생한 정도 열차 사고, 태안화력 발전소 사고 등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작업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공공기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일하는 모두를 ‘있다’, 일터에 안전이 ‘있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기획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잇달아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9월 2일 ‘배달라이더와 안전을 잇다’를 주제로 배달라이더 약 20명이 참여해 보호 장비 착용, 도로 교통 사고 예방 등 산업안전교육과 노동자 건강 상담을 실시했다.

이어서 9월 한 달 동안 약 100명의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릴레이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하고, “배려 배달 캠페인(과속 NO! 안전 YES!)”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이음센터를 편안한 이동 노동자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앞으로 택배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기획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55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w/nw/detailNesDtlView.do?searchBbsId=MC5F8B5_000000000028&searchNesId1=MC5F_000000000075110&menuNo=4010100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7/3, 부산 강서구] 고정프레임 절단 중 연료통이 폭발함
[8/13, 충남 아산시] 배관 용접작업 중 폭발
[8/15, 경북 경산시] 철물 위에 올라 작업 중 떨어짐
[8/25, 경북 상주시] 중심을 잃고 떨어짐

제33회「안전경영대상」시상 계획

1. 접수기간 : 2025. 9. 1. ~ 2025. 10. 14.(44일간)

2. 신청서류 :

① 신청서 1부(붙임2, 5), ② 안전보건활동 요약서 4부(붙임3),
③ 주요경력 및 과거포상기록 4부(붙임4), ④ 기성공정을 확인서 (건설현장에 한함)

3. 접수처 : ①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②매경안전환경연구원으로 우편 접수

① (우)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전화: 044-202-8814)

② (우) 04557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필동1가, 매일경제신문 별관 4층)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전화: 02-2000-5772, 팩스: 02-2000-5776)

* 신청서식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매경안전환경연구원(www.mksh.co.kr),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5628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외국인 노동자 대상 건설업 안전보건 강사 양성교육 확대

조선업 이어 9월 1일부터 건설업 교육시작 ... 교수법, 강의자료 제공 등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던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양성 교육'을 올해 9월 1일부터 현대건설(주), 삼성물산(주) 건설부문과 함께 건설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건설업 고용 비중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언어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작업 환경의 특성상 떨어짐, 물체에 부딪힘, 깔림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이다.

매년 건설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 중 약 3천여명이 다치고, 약 40여명이 사망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내실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공단은 '23년부터 언어 문화 장벽 해소를 위해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23년부터 현재까지 양성된 총 48명의 외국인 강사가 연간 약 1,200명의 자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그 대상을 건설업으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에서 보다 폭넓은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해 ▲건설업 주요 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효과적인 강의법 등 실무 위주의 건설현장에 특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한국어가 능숙한 현대건설(주),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소속의 외국인 노동자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교육 이수 후 강사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자료를 자국어로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강의자료 개발도 함께 지원한다.

김순영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산업현장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외국인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628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오이레터

더위가 부르는 심장의 위기

고온 노출과 심혈관질환의 역할

고온이 심혈관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국내외 여러 역학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 8개 도시 분석에 따르면, 전체 기간 평균 기온이 15℃에서 25℃로 상승할 때 심혈관질환 입원 위험이 약 4.5% 증가합니다(95% CI: 0.7~8.5%). 다른 국내 연구에서는 특정 기준 온도 이상에서 기온이 1℃ 오를 때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R 1.08, 95% CI 1.06~1.09). 국제적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일일 기온 변동(diurnal temperature range, DTR)이 1℃ 증가할 때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0.7%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들이 고온환경은 온열질환을 넘어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온 조절 부담이 곧 심혈관계 부담

체온 조절 부담은 그 자체로 심혈관계에 부담이 됩니다. 체온이 오르면 신체는 전도·대류·복사·발한으로 열을 내보내는데 고온에서는 발한(증발 냉각)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습도가 높거나 통풍이 불량 환경에서는 이러한 증발 냉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신 심박수와 심박출량을 끌어올려서라도 열을 빼야 하므로 심장에 추가 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나 당뇨병이나 기존 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체온조절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자율신경병증으로 인해 발한 기능이 저하되고 미세혈관·내피 기능 장애로 인해 피부 혈관 확장이 제한됩니다. 심부전이나 허혈성 심질환 같은 기존 심혈관질환 환자는 피부로 혈류를 보내기 위해 심박출량을 늘릴 여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베타차단제·이노제와 같은 일부 약물은 심박수 상승을 억제하거나 탈수를 악화시켜 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을 더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발한 감소, 피부혈류 조절 장애, 심박출량 증가의 한계, 탈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심혈관계 부담이 커집니다. 그 결과 허혈, 부정맥, 심부전 악화 등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요약하자면 고온 환경에서 체온 조절을 위해 심혈관계에 부담이 가해지고, 이미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이 부담이 더 커져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42>

조리흡도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할까?

조리흡은 발암물질?

고용노동부가 조리흡을 건강관리카드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인과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국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폐암으로 산재신청을 하였던 급식노동자 213명 중 178명이 이미 직업성암으로 보상을 받았습니 다.

조리흡에 의한 급식종사자 폐암은 최근 우리나라 직업성 암의 가장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IARC(국제암연구소)에서는 고온의 기름조리(High temperature frying) 배출물(emission)을 2010년에 Group 2A (인간에게 발암가능한 물질)로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고온이란 최소 100도 이상이며, 230도 이상이면 높은 변이 유발성을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조리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볶음(Stir frying), 굽기(Pan frying), 튀김(Deep frying)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리방식에 의해 노출되는 배출물은 조리흡(Cooking fume), 조리오일흡(Cooking oil fume)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리흡'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IARC에서 조리흡을 Group 2A로 판단하였던 시기는 2010년이었습니다. 그 이후 조리흡에 관한 추가 연구와 리뷰를 통해 조리흡과 폐암과의 역학연구의 증거는 좀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리흡은 "흡연을 하지 않은 여성에서 발생하는 폐암"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국내 학교 급식조리사 연구에서 폐암 위험 확인

최근 국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을 사무직 대조군과 비교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입니다.

259,819인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학교 급식조리사에서 76건의 폐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연구결과, 학교 급식조리사의 폐암 위험비(hazard ratio)는 1.72(95% CI: 1.14~2.60)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흡연자 하위 코호트에서는 폐암 위험비가 4.23(95% CI: 2.36~7.58)으로 더욱 높았습니다.

이 연구는 국외 연구에서 확인된 조리흡과 폐암과의 관련성이 우리나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43>